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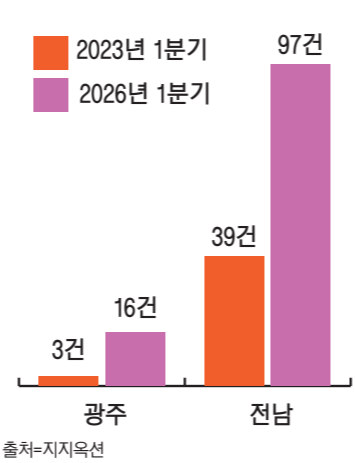
광주·전남 공장 경매 '붐물'...제조업 비명 커진다

전남 공장 경매 2년 새 2배 이상 증가...광주도 5배 ↑ 공장값 반토막에도 응찰자 1명대...투자심리 '냉랭' 침단·대불산단 폐업 증가...“금융 등 지원대책 절실”

광주·전남 산업단지 곳곳에서 공장 경매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고환율·고금리 부담, 중국산 저가 공세까지 겹치면서 제조업 기반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장들이 경매시장에 쏟아지고 있지만 낙찰가는 급락하고 응찰자는 줄어드는 흐름까지 보이면서 지역 제조업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1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광주지역 공장 경매 진행건수는 2023년 1분기 3건에서 올해 1분기 16건으로 뛰었다. 3년 사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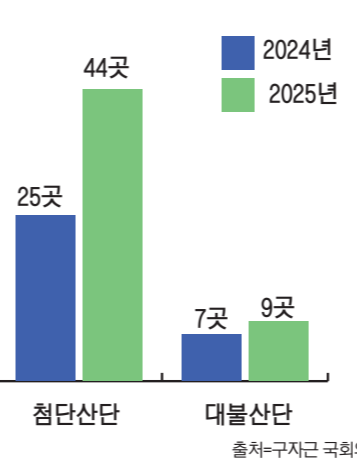
전남의 증가 폭은 더 가파르다. 전남 공장 경매 진행건수는 2023년 1분기 39건에서 2025년 1분기 92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같은 해 3분기에는 100건까지 치솟았다. 올해 1분기에도 97건이 진행되며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공장 경매 증가는 단순한 부동산 시장 변화가 아니라 제조업 현장의 자금난과 수주 감소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금융비용 부담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수출 둔화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공장 운영 자체를 버거워 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공장 경매시장 분위기도 '최악' 그 자체다. 전남 공장 경매 매각가율(매각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은 2023년 1분기

산업단지 공장 경매



84.3%에서 올해 1분기 58.6%로 추락했다. 올해 2분기에는 50.6%까지 하락했다. 광주 역시 올해 2분기 매각가율이 47.1%에 그쳤다. 감정가 절반 수준에서도 공장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남지역 평균 응찰자 수도 대부분 1명대에 머물러 산업용 부동산 투자심리 위축 현상이 뚜렷하다.

국가산단 폐업기업



업체에서는 최근 산단 분위기가 예년과 크게 달라졌다. 반은이다. 한때 야간까지 공장 가동이 이어지던 산업단지 곳곳에서 지금은 휴업하거나 가동률을 낮춘 업체들이 늘고 있고, 일부 업종에서는 신규 설비 투자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산업단지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구자권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

과, 광주첨단과학국가산단의 폐업 기업은 2024년 25곳에서 지난해 44곳으로 증가했다. 휴업 기업도 같은 기간 7곳에서 8곳으로 늘었다. 전남 대불국가산단 역시 지난해 폐업 기업이 9곳으로 집계되며 증가 흐름을 보였다. 조선·기계업종 협력업체 비중이 높은 대불산단 특성상 업황 둔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양산단도 같은 기간 폐업 3곳, 휴업 1곳이 신고됐다. 이 같은 현상은 금형·사출·가공 등 이른바 제조업 '밀단'을 떠받치는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완성차와 대기업 중심 생산은 유지되고 있지만 2·3차 협력업체들은 원가 부담과 수주 감소를 동시에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 평동산단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과 금융비용 부담이 너무 커져 버티기 어려운 업체들이 늘고 있다"며 "공장을 내놔도 선택 인수가 어려운 곳을 찾기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중국산 저가 제품 확산도 지역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형·기계·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역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석유화학·철강 관련 업종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장 경매 증가를 단순 부동산 시장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 기반 약화 신호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경제에 관계자는 "광주·전남 제조업은 자동차·조선·기계·석유화학 등 대기업 중심 산업과 협력업체 구조로 연계를 보여준다. 완성차와 대기업 중심 생산은 유지되고 있지만 2·3차 협력업체들은 원가 부담과 수주 감소를 동시에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최근 공장 경매 증가와 산단 폐업 확대는 단순 경기순환 차원을 넘어 제조업 체질 약화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 뿌리산업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금융·판로·수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삼성전자 파업 눈앞...중노위 2차 사후조정 본격화

박수근 위원장, 오늘까지 진행 21일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 경제단체, 파업 철회 공동성명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상 중재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두 번째 사후조정 회의가 최소 이틀에 걸쳐 진행될 전망이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18일 2차 사후조정 회의 진행 중인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후조정을) 1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측 이견이 첨예한지 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21일로 예고된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이날 2차 사후조정에 돌입했다. 앞서 1차 사후조정도 11~12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바 있다. 노사 양측 요청에 따라 박 위원장은 2차 사후조정을 단독 조정하고 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노조 위원장은 "지금 상황이 어떨까"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노사는 지난 주말에도 연이틀 사전미팅을 갖고 이번 조정 회의를 준비했으나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를 둘러싸고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2차 사후조정 회의 종료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노조 측이 예고한 파업 돌입 시점이 단 사를 남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사후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로 여겨진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이후 회의에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파업을 막기 위한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시시하면서 삼성전자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계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면서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노조가 기존 임금만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

다"면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파업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 경제와 산업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기업 이익 배분 요구로, 법원에서 이미 '임금이 아니다'라는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부적절하고 과도하다"고 밝혔다. 노조가 요구하는 약 45조의 성과급 규

모는 지난해 전체 주주 배당금의 4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투자 여력과 미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영업이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이사회와 경영 판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대규모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기회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 인재와 스타트업 매칭"...중기부, 최대 2억원 지원

'AI 인재 실증형 창업패키지 시범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기술 인력 수급에 난항을 겪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AI 인재 실증형 창업패키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기업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AI 기술을 활용해 제품·서비스 개선이나 기술 과제 해결을 추진하는 스타트업과 정부 AI 교육과정 수료생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채용이

이월된 기업에는 최대 2억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단순 채용 연계 사업과 달리 스타트업이 보유한 현안 과제를 AI 인재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지원 대상은 딥테크 5대 분야 창업 기업으로, 약 80개사를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뿐 아니라 투자유치, 실증 검증 등 주관기관의 맞춤형 지원 프로

그램도 제공한다. 그동안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AI 기술 경쟁력 확보 과정에서 전문인력 채용 부담이 핵심 애로사항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2024 AI 산업 실태조사'에서도 창업 기업들은 데이터 확보 문제(59.5%)와 함께 AI 인력 부족(57.3%)을 주요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중기부는 정부가 직접 양성한 AI 교육 수료생과 스타트업을 연결해 인력 수급 불균형을 줄이고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AI 도입이 필요한 현안과 해결 목표 등을 담은 'AI 인재 활용 현안 해결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는 해당 계획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중기부는 최종 선정 규모보다 약 1.2배 많은 후보 기업으로 우선 선발한 뒤 AI 교육 수료생과 직접 만나는 '매칭 데이'를 통해 대면 면접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채용이 확인된 기업에는 AI 인재 활용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 중간 평가를 통해 기술 활용 성과와 사업화 가능성 등을 점검한 후 잔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사업 접수는 다음달 12일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기아, 국내 대표 경차 'The 2027 모닝' 출시

안전·편의 사양 적용...상품성 강화 연식변경 모델

기아가 국내 대표 경차 모닝의 연식변경 모델 'The 2027 모닝'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The 2027 모닝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안전·편의 사양을 기본 적용하고 신규 사양 및 내장 색상을 추가해 전반적인 상품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The 2027 모닝의 밴 모델을 포함한 모든 트림에 LED 램프를 기본 적용해 실내 시인성을 높였으며, 1.0 가솔린 승용 차량의 경우 모든 트림에 운전석 무릎 에어백을 기본화해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 또 시그니처 트림부터 신규 사양인 10.25인치 클러스터를 기본 적용하고, 시트를 포함한 실내 곳곳에 밝은 그린 색상을 적용한 신규 내장 색상 '아이스 그린'



를 추가해 실내 고급감을 더욱 높였다. 기아 관계자는 "The 2027 모닝은 고객 선호도가 높은 사양 위주로 상품성을 한층 끌어올린 모델"이라며 "경차 분야의 경제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더욱 경쟁력 있는 상품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현대차, '뉴르브르크링 24시' 11년 연속 완주

양산차 기반 '엘란트라 N TCR', 6년 연속 우승 달성

현대자동차 고성능 브랜드 '현대 N'이 뉴르브르크링 24시에서 11년 연속 완주에 성공했다. 현대차는 지난 16일부터 17일(현지시간)까지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뉴르부르크 지역에서 열린 '2026 뉴르부르크링 24시 내구레이스'에서 엘란트라 N TCR 1대와 엘란트라 N1 컵카 2대 등 출전 차량 3대가 모두 완주했다고 18일 밝혔다. 뉴르부르크링 24시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레이스 트랙으로 꼽히는 25.378km의 뉴르부르크링 서킷을 24시간 동안 주행하며 총 랩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는 자동차 경주대회다. 서킷은 최대 300m의 고저차와 약 170개의 코너로 구성돼 있으며 평균 완주율이 60~70%에 불과해 '녹색 지옥(The Green Hell)'이라고도 불린다. 먼저 엘란트라 N TCR은 양산차의 형태와 부품 상당 부분 유지한 배기량 2000cc 미만 전용 투어링 경주차량이 경

쟁하는 TCR 클래스에 참가해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현대 N은 TCR 클래스 6년 연속 우승을 비롯, 지난 2016년 첫 출전 이후 11년 연속 뉴르부르크링 24시 완주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또 이번 대회에는 향후 N 차량에 탑재될 2.5T(터보) 고성능 엔진 기반의 엘란트라 N1 컵카 2대에 데뷔해 눈길을 끌었다. 엘란트라 N1 컵카는 기존 2.0T 엔진 대비 배기량이 높아지며 SP3T 클래스가 아닌 SP4T 클래스에 출전했고, 2대 모두 완주에 성공하며 차세대 고성능 파워트레인 내구성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이 차량에는 현대차가 N 페스티벌을 통해 배출한 김규민, 김영찬, 신우진 등 국내 정상급 젊은 선수들이 탑승해 뉴르부르크링 24시 완주에 성공했다. 한편, 현대차는 젊은 선수들에게 뉴르부르크링 24시 출전 기회를 제공해 경험과 실력을 함께 갖춘 드라이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